

# 安貧과 嘆窮, 이념과 현실의 거리

최 상 은\*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이념적 가치, 여유있는 안빈
- III. 탄궁에서 안빈으로, 절박한 안빈
- IV. 현실에 대한 불만, 원한맺힌 탄궁
- V. 마무리

## <Abstract>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and the sigh of poverty,  
the distance between the idea and the actuality

Choi, Sang-Eun

This thesis is a study on Sadaebu's aesthetic sense through the continuance and the transfiguration of recognition of poverty. A study on the specific theme and material can provide the measuring stick of the consistent study from classical literature to contemporary literature.

First,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work of sadaebu who made the idea of living to be content with poverty in the first term of Josun-dynasty(朝鮮). The sadaebu who made the ideal of administration, practice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and lived free from worldly cares if they lost government position.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of their works had

---

\* 상명대학교 교수

the abundant serenity and the interesting fun. At this date there was a tendency of singing about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On and after 17th century many works about sadaebu's conflict toward poor actuality were created in spite of their firm belief of idea. Another side the works which acceded to the world of works in the first term of Josun-dynasty was created continuously. But these works let us have hollow feelings because of the deficient originality. These two types works show us urgent emotion which is caused by difficulty to maintain the idea of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Lastly,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bitter sigh of poverty in reality-criticism-gasa(現實批判歌辭) in 18th·19th century. In these works the idea of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was not brought out, because Confucian ideas became invalid as a principle of life. These works express the dissatisfaction with poor actuality and the thirst toward riches.

This thesis confirmed that the society which regarded the being content with poverty as a virtue was converting to the society which regarded riches as a virtue.

## I. 머리말

문학작품의 미의식은 담당층의 이념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다. 문학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다른 역사적 장르가 생성·성장·소멸하였고 그 장르들은 모두 미의식을 달리 했다. 그것은 각 시대마다 문학 담당층이 달랐기 때문이다.

시가의 작품세계는 담당층의 이념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의 흐름이다. 이념과 현실이 일치할 때, 즉 이념이 현실에 실현되었을 때 그 희열을 노래했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비애를 노래했다. 그 정서 역시 담당층에 따라, 장르에 따라, 좁게는 개별 작품의 작가에 따라

달랐다.

본고는 조선조 사대부 시가의 미의식의 일단을 밝히기 위하여 작품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작품을 중심으로 한 유형 연구는, 미시적인 접근인 개별 작품론이 지닐 수 있는 편협성을 지양하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개별 작품의 작품세계를 꿰뚫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시적인 관점에서의 유형 연구는 동시대 문학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일별해 볼 수 있고,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유형 연구는 시대별, 담당층별 작품세계의 지속과 변모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조 시가에 면면이 이어져 오는 모티프 중의 하나가 ‘安貧’이다. 안빈은 조선인의 생활이념으로서 삶의 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여유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이념적 배경으로 인해 안빈은 자연과 함께 사대부문학에서 가장 큰 주제 영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체제이완에 따른 이념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안빈의 동시대적 양상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핍으로써 조선조 시가의 미의식의 큰 줄기를 주제사적 측면에서 밝혀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기서는 주로 가사 장르에 형상화된 안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념적 가치, 여유있는 안빈

조선 사대부층이 가난을 즐긴 것은 아닐 텐데도 安貧樂道를 그들의 이념으로 삼았던 것은 孔子가 아꼈던 제자 顏回 때문이었을 것이다. ■■■論語■■■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안회는 실제로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다. 안회는 그런 가난한 형편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修身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관직에서 초야로 물러나 있을 때 사대부들이 안빈낙도를 내세우며 여유있게 수신할 수 있었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사대부층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빈한하지 않은 형편에서 스스로 수신하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근거가 있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이 안빈낙도를 구호처럼 되뇌었다. 그것은 안빈낙도를 자신들의 추구해야 할 생활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난하더라도 아침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즐거울 수 있어야 하고, 부유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禮를 좋아해야 한다.”<sup>2)</sup>나 “군자는 道를 위하여 힘을 뿐 먹고 살 일을 도모하지는 않으므로 군자는 도를 근심하지 가난을 걱정하지는 않는다.”<sup>3)</sup>와 같은 빈부에 대한 관념은 그들 삶의 지표였을 것이다. 물론 토지 등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빈곤하지는 않았지만, 사대부층은 경서의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국제민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사대부층은 일단 관직에서 초야로 물러났을 때는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당쟁 시절 관직을 그만 두고 초야로 물러나는 사대부들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인과 처사는 상황에 따른 사대부의 양면이라 하지만, 처사인 사대부는 이념 실현을 위한 출사를 기다리며 수신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갈등을 가능한 한 나타내지 않으려 했다. 안빈낙도로써 여유와 흥취를 만끽하기도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 엇더흔고  
 넷 사롬 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山林에 못쳐 이서 至樂을 므룰 것가  
 數間茅屋을 碧溪水 얹피 두고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여서라

功名도 날 띄우고 富貴도 날 띄우니

- 
- 1) 최진원, <江湖歌道研究>, 《國文學과 自然》(성대 출판부, 1981), 10~23쪽 참조.  
 2) 《論語》, <學而>,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3) 《論語》, <衛靈公>, “子曰 君子謀道 不謀食 耕也餒在其中矣 學也祿在其中矣 君子憂道 不憂貧.”

淸風明月 外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에 핫튼 혜음 아니 흐니  
 아모타 百年行樂이 이만흔돌 엇지흐리

정극인의 <賞春曲> 서두와 결말이다. 정치현실을 흥진세계에 비유하면서 산림에 묻혀 풍월주인이 된 자신의 삶을 과시했다. 수간모옥에서 풍월주인이 되어서, 단표누항에서 청풍명월을 벗하며 허튼 생각하지 않는 백년행락을 자랑했다. 단표누항에서 딴 마음 먹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신한 안회의 행적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렇지만 “功名도 날 띄우고 富貴도 날 띄우니”에서는 부귀공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미련이 스며 나온다. 이런 정도의 미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춘의 여유와 흥취가 주조를 이룬다. 수간모옥과 단표누항은 정극인의 초야생활의 실재 공간이라기보다는 안빈낙도 구현을 위한 관념적 공간이다.

다음 시조 작품의 경우를 참고로 하자.

쓴늬를 데온물이 고기도곤 마시이세  
 草屋 조븐줄이 귀 더욱 내분이라  
 다만당 님그린 타스로 시름계워 흐노라(鄭澈)

집方席 니지마라 落葉엔들 못 안즈라  
 술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달 도다온다  
 아희야 薄酒山菜르만정 업다 말고 니어라(韓濩)

정철의 작품은 정치현실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안빈하는 소박한 초야생활을 노래했다. 데친 쓴나물이 고기보다 맛이 있고 좁은 초옥이 내 분수에 맞다는 표현, 달빛 아래 낙엽에 앉아 박주산채일망정 내오라는 표현에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여유로운 흥취를 볼 수 있다. 정철의 경우 정치현실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지만, 안빈 이념으로써 극복하고 있다. 한호의 경우는 정치현실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소박한 정서를 형상화했

다. 이것은 이념의 안정성과 현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이념성이 바탕이 될 때, 안빈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느낄 수 있었다.

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기피 자히 남다  
 샷샷 빗기쁘고 누역으로 오슬삼아  
 이몸이 칩지 아니힘도 亦君恩이샷다(孟思誠 : <江湖四時歌>)

건곤도 가움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인간을 써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사  
 니것도 보려히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허려히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란 어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뉘 곳츠란 뉘 쓸려료(宋純 : <俛仰亭歌>)

<강호사시가> 겨울 노래는 추운 겨울을 묘사했지만, 한 자가 넘게 쌓인 눈이 소담스러워 추위보다는 푸근한 느낌을 준다. 그런 느낌은 샷샷 쓰고 누역으로 옷 삼아도 춥지 않다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 겉치장이야 어떻게 신경쓰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여길 수 있다. 태평성대에서 경국제민의 이상을 실현했다고 믿는 퇴로재상의 안분지족의 여유와 푸근한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면앙정가>에서 柴扉가 있는 草廬는 안빈의 관념적 공간이다. 아람이 벌어진 밤을 줍고 마당을 쓰는 소박하고 한가한 선비의 시골 생활을 그렸지만 한편으로는 무궁무진한 자연의 경치를 만끽하고 있는 시인의 풍요로운 마음과 들뜬 흥취를 생동감 있게 나타냈다.

사대부층은 경국제민을 이상으로 삼았지만, 退而自修는 물러나는 명분이 될 수 있었다. 퇴이자수도 궁극적으로는 경국제민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야에서의 自修는 富豪보다는 淸貧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초야에서의 청빈한 삶을 통하여 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현실을 흥진세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의식의 바탕은 여기에 있었다. 정극인의 흥진세상에 대한 정서나 정철의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이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조선전기 사대부들은 물러나 자수하는 처지가 되면 으레 이렇게 안빈낙도

를 노래하는 풍조가 있었다. 아래의 작품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臥龍先生 諸葛亮은 南陽 岬의 밧을 갈며  
 逐燕處士 陶淵明은 北窓 아리 술을 걸너  
 各得其志 뜻을 즐겨 不求聞達 조홀시고  
 陋巷簞瓢 자바다가 安貧이나 흥여 보시  
 平原食客 三千中の 毛遂自薦 우습도드(李緒:<樂志歌>)

聖代에 逸民이 되어 湖海에 누어이서  
 時序를 니젓쌌다 三月이 저므도다  
 角巾春服으로 세네 번 드리고  
 檣楫松舟로 창오탄 건너(許樞:<西湖別曲>)

仙翁의 篋을 일이 곳 업도 아니흐다  
 울밋 陽地편의 외씨를 찔허두고  
 밧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靑門故事를 이제도 잇다 홀다  
 芒鞋를 봐야 신고 竹杖을 훑더디니  
 桃花 편 시내길히 芳草洲의 니어세라(鄭澈:<星山別曲>)

위의 작품들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초야에서 자연의 흥취를 그린 조선전기 가사 작품의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 그만큼 안빈은 하나의 풍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 Ⅲ. 안빈에서 탄궁으로, 절박한 안빈

조선전기에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유있는 안빈을 보여준 데 비해서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는 안빈의 작품적 의미가 매우 달라졌다. 물론 보수 사대부층의 여유있는 안빈은 계속되기도 했지만, 사대부층의 위상 변동에 따른 현실인식의 변화는 작품에 형상화된 안빈의 의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사대부층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계에 진출하고 있었던 계층이 있는가 하면, 여러 대에 걸쳐서 출사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鄕班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향반은, 신분은 사대부라 하지만 사대부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신분적 지위와 그 이념인 성리학이 확립된 조선전기의 사대부와 조선 후기 향반들의 처지 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학세계 역시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박인로와 정훈의 경우<sup>4)</sup>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사람은 매우 보수적인 향반이었다. 박인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이 되었고 수군으로 참전하였다. 가난한 형편에 양식을 모아 참전하면서 충성을 다짐하였고, 그의 만년의 행적을 보아도 유교이념을 생활화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이점은 박인로의 가사 <船上嘆>·<蘆溪歌>·<獨樂堂> 등 9작품과 연시조인 <立巖>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정훈 역시 독학으로 공부하여 유교이념을 실천해 나갔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아들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키게도 했다. 또한 인조반정 후에는 <聖主中興歌>를 지어 聖德을 기리고 善政을 축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작품에서는 앞서 다룬 작품들과는 매우 다른 정조를 느낄 수가 있다. 이념적 신념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너무나 곤궁해진 현실 앞에 당황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어리고 迂闊홀산 이 니 우히 더니 업다  
吉凶禍福을 하날과 부쳐두고  
陋巷 김푼 곳의 草幕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서흠 밥 닷흠 죽에 煙氣도 하도 할샤

4) 이 두 사람의 신분적 성격과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한창훈, <朴仁老·鄭勳 詩歌의 現實認識과 志向>(고려대 석사논문, 1993) 참조.

5) 최상은, <蘆溪歌辭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韓國詩歌研究》11집(한국시가학회, 2002. 2) 참조.



언매마히 바든 밥의 懸鵲稚子들은  
 장괴 버려 졸 미뎃 나아오니 人情千里에 춤아 혼자 먹을년가  
 설데인 熟冷에 빈 비 석일 썬이로다  
 生涯 이러흐다 丈夫 뜻을 움길년가  
 安貧一念을 격을망정 품고 이서  
 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齟齬흐다

하늘이 삼기시를 일정 고로 흐련마논  
 엇지흔 人生이 이대도록 苦楚흔고  
 三旬九食을 엇거나 못 엇거나  
 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顏瓢屢空인들 날ㄴ치 뷔여시며  
 原憲 艱難인들 날ㄴ치 已甚홀가  
 春日이 遲遲흐야 布穀이 ㅼ야거늘  
 東鄰에 짜보 엇고 西舍에 호미 엇고  
 집 안의 드러가 ㅼ갓술 마련흐니  
 올벼ㅼ ㅼ 말은 반나마 쥐 먹엇고  
 기장피 조ㅼ튼 서너 되 부터거늘  
 寒餓한 食口 일이흐야 어이 살리

朴仁老의 <陋巷詞>와 鄭勳의 <歎窮歌> 첫머리이다. 앞서 논의한,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들과는 어조가 사뭇 달라졌다. 앞서 논의한 작품들은 주로 안빈낙도를 과시하기 위하여 오히려 현실을 혼탁한 세상에 비유한 데 비하여 이 두 작품은 가난에 대하여 한숨섞인 탄식을 하고 있다. 박인로는 승냥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자신의 모습, 음식을 보고 장가판에 졸 밀 듯 돌진하는 누더기 아이들을 보면서 안빈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시의에 밝지 못하여 날로 어긋나가는 자신의 삶을 탄식하였다. 정훈 역시 오랜 세월 관직에라고는 나가 보지도 못하고 삼순구식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가 안회나 원현의 가난에 비할 바가 아니라면서 춥고 배고픈 막막한 처지를 하소연하였다. 정훈은 가난한 현실이 자신의 우환 때문이라고 하면서 <迂闊歌>를 지어 탄식을 늘어놓기도 했다.

전에 없는 구체적인 시어를 사용하면서 가난한 현실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서흠밥 닛흠 죽, 현순치자, 설데인 승냥 등과 三旬九食, 올벼삔 혼 말, 기장피 조פות과 같은 가난을 뜻하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사용, 切身한 가난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정훈은 “이 怨讐 窮鬼를 어이하야 녀희려뇨”라고 격앙된 어조를 쓰기도 했다. 몸에 사무치는 가난은 나라에 대한 원망과 이념적 지주인 주공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박인로는 임진왜란 때 죽을 각오로 5년에 걸쳐 이시섭혈하며 몇 백전을 치르고 왔는데 어느 겨를에 일가를 돌아보겠느냐<sup>6)</sup>라고 나라를 원망했고, 정훈은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sup>7)</sup>라고 탄식했다. 이념적 근거 자체에 대한 원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가난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념적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두 작품의 결말은 안빈의 또 다른 의미를 느끼게 해 준다.

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마는  
 너 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飮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혼 뜻이 溫飽에는 업노왜라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흥리 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디로 살렷노라

無情혼 世上은 다 나를 브리거늘  
 네 호자 有信하야 나를 아니 브리거든  
 人威로 避絶하야 줌피로 녀힐너나

6) 이상보, 《17세기 가사 전집》(교학연구사, 1987), 91쪽. “飢寒이 切身하디 一丹心を 이질는가 / 奮義忘身하야 죽어야 말너 너겨 / 于橐于囊의 줌줍이 모아 녀코 / 兵戈五載에 敢死心を 가져 이셔 / 履尸涉血하야 몇 百戰을 지니연고 / 一身이 餘暇 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7) 위의 책, 168쪽. “鄒魯에 두르 거러 聖賢講業하던 자취나 보고제고 / 周公은 어디 가고 꿈의도 覓잔느고 / 已甚혼 이 내 囊을 슬허하디 어이하리.”

하는 삼긴 이 내 窮을 혈마흔들 어이 흐리  
 貧賤도 내 分이어니 설위 드슴흐리

안빈낙도, 또는 안분지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결말지었다. 서두부터 지속적인 탄궁의 정서를 이어오다가 결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정서의 변화는 가난 극복과 유가적 삶을 위한 의지의 확인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나타났다. 박인로는 원현과 석송을 인용하여 빈부가 인생에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자위하며 유교 덕목의 실천을 다짐했고, 정훈은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가난만큼은 유신하여 날 버리지 않고 있다는 해학적인 대화 문체를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빈천을 내 분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특히 정훈은 마지막 줄에서 빈천을 자기 분수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서러움을 탄식조로 표현하였다. 두 사람은 일생 동안의 행적이나 여러 문학작품으로 미루어 볼 때, 유교이념에 매우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들이 유가로서 경국제민의 이상을 좌절당하고 여유있게 퇴이자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버팀목은 그래도 유교이념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급변하는 현실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념 세계로 물러나 안빈으로써 자수하는 것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어야 했던 보수 향반 계층의 전형이다.

위의 두 사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金得研과 李德一은 시조작품으로 이런 정서를 표현했다.

功名을 원찬커든 富貴인들 비알소나  
 一間草屋의 고초히 혼자안자  
 밤낮의 憂國傷時를 못내설위 흐노라(이덕일)

내 貧賤 보내려흔들 이 貧賤 다투게 가며  
 님의 富貴 오판다흔들 저 富貴이 내게 오라  
 보내지도 청치도 말고 내 분 재로 흐리라(김득연)

이덕일은 초라한 시골에 외롭게 지내는 생활에 고초를 느끼고 있음에도 부

귀공명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나라 걱정뿐이라고 했다. 김득연은 빈천에서 벗어나 부귀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현실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차라리 부귀 빈천에 연연하지 말고 분수대로 살겠노라고 자위하였다.

이렇게 신분적 위상이 달라진 상황에서 절박한 안빈낙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조선전기에 일반화되어 있었던 여유있는 안빈낙도를 노래한 작품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이들 작품에서는 안빈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시상이 공허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한정된 소재를 두고 격식화된 표현을 되풀이하다 보니 신선한 느낌이 사라지고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sup>8)</sup>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樂貧歌><sup>9)</sup>를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① 극심한 빈천에도 시름을 잊고 한가하게 지냄
- ② 정자에 앉아 한가한 저녁 풍경을 보며 三山·武陵으로 생각함
- ③ 저녁 뉘시에서 돌아오며 西湖梅鶴과 曾點咏歸를 생각함
- ④ 홀로 반취한 모습이 옛 隱者가 된 듯함
- ⑤ 부귀영욕을 잊고 낙시하고 밭가는 모습이 呂尙·諸葛과 같음
- ⑥ 가난하지만 값없는 강산풍월과 함께 늙고자 함

시종일관 안빈하는 자신의 모습을 일일이 선현들에 비유했다. 즉, 옛 성현들의 사례로써 자신의 은거와 흥취를 규범화시켰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지명·소재 등은 모두 작가의 은거지와는 관계 없는 중국 선현들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즉 <낙빈가>는 추상적인 상상의 세계에서 관념적 흥취를 즐기는 은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단락①에서는 도연명의 詩句 중 三旬九食과 十年一冠<sup>10)</sup>을 인용하여

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지식산업사, 1994), 343쪽.

9) <낙빈가>는 율곡이나 퇴계의 작품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작품의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후기의 작품으로서 율곡의 이름을 가탁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강전섭, <낙빈가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대왕사, 198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지식산업사, 1994) 344쪽 참조.

10) 도연명의 <擬古> 9수 중 제5수로서 인용구와 같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안

안빈낙도하는 자신의 삶을 과시했다. 더욱이 “三旬九食을 먹으나 못 먹으나 / 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의 두 행은 정훈의 <탄궁가>에도 같이 쓰여서 도연명의 이 詩句가 당시에 관습적으로 인용되었음을 말해 준다. <탄궁가>에서는 이 두 시행이 탄빈을 위하여 인용되었지만, 이 작품에서는 안빈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그렇지만 행간에는 가난한 삶에 대한 시름과 번뇌가 녹아 들어 있다. 그런 면에서 단락⑤의 “無懷氏적 葛天氏 적 사롭인가”와는 정황 연결이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상 전개가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흔들림 없는 이념적 삶을 최대한 미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단락②③④⑤에서도 위에 요약한 바와 같이, 중국의 태평성세나 선현들의 삶에 의지하여 은거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서술하였다. 단락⑤의 다음 대목은 이점을 잘 설명해 준다.

歷代를 按鑑하야 넷 사롭 헤여하니  
周時 呂尙은 渭水에 고기 낚고  
漢代 諸葛은 南陽에 밭출 가니  
이 아니 그 짜히며 내 아니 괴룯던가  
사롭이 古今인들 뜻지야 드를손가

역대의 옛 사람들을 헤아려 그 삶을 본받으려 했다. “이 땅이 바로 그 때 그 땅이 아니며, 내가 바로 그들이 아니겠는가 / 고금의 사람은 다름지언정 뜻이야 다르겠는가.” 옛 선현과 자신의 뜻이 같음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러한 이념성은 결사인 단락⑥에서는 “皇扉의 벗님니야 이 니 柴扉 웃지 마라”라고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이시면 독이요 업스면 굴물망녕 / 갑업순 江山風月과 함피 늑자 호노라”라고 안빈낙도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작가 자신의 은거지와 삶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상이 공허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누항사>류는 작가의 확고한 이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곤궁해진 현실 앞

---

색을 편하게 가지고 유유자적하는 선비를 찾아 그를 흠모하는 뜻을 노래한 작품. 총 16행의 작품인데 인용구의 원문은 “三旬九遇食 十年著一冠”이다.

에 당황하고 고민하는 향반 계층의 탄식으로서 조선전기 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변화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품군이다. 이에 비해 <낙빈가>류는 조선전기 가사에서 일반화된 이념과 흥취를 이어나가고자 새로운 작품세계의 창조보다는 이미 일반화된 정서와 현실인식, 그리고 규범적인 상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공허한 느낌을 주는 작품군이다. 두 유형은 몇 가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이념적 삶의 어려움과 공허함, 즉 안빈낙도 이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보수 계층의 작품군이다.

#### IV. 현실에 대한 불만, 원한맺힌 탄궁

위에서 논의한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안빈낙도를 지향하는 보수 계층의 작품임을 보았다. 변화된 현실 앞에 당황하면서 현실을 추스려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념에 의지하여 유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런 반면, 유가로서 이념을 수호하면서 안빈낙도하는 여유는 사라지고 원한의 목소리를 높인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했다. 흔히 현실비판가사라 일컫는 작품군의 작품세계는 종전의 작품들과는 판이하다. <누항사>류에서는 가난한 현실이 자신의 시의에 밝지 못한 우월함에서 연유한다고 했지만, 현실비판가사에서는 기득권층의 횡포에 원인이 있다고 한 데서 가치관의 격차가 매우 커졌다.

누대봉사 이 내 몸은 하릴없이 매어있고  
시름없는 제족인은 자취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몸에 모두 무니  
한몸 신역 삼량오전 돈피이장 의법이라  
십이인명 없는 구실 합쳐보면 사십륙량  
연부연에 말아무니 석송인들 당할소나  
약간 농사 전패하고 채삼하러 입산하여  
허항령 보태산을 돌고돌아 찾아보니  
인삼쌈은 전혀없고 오가일이 날속인다

## (중략)

흔비백산 반주검이 언불출구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같이 누웠다가  
 인사수습 하온 후에 두 발끝을 굽어보니  
 열가락이 간데 없네

<갑민가>의 한 대목이다. 작중 화자는 양반의 후예로서 누대봉사하느라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도망간 친척의 身役까지 물어야 하니 石崇이라도 당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결국 신역을 물기 위해 채삼, 돈피사냥을 나갔다가 고생 끝에 발가락만 다 잘리는 수난을 겪었다. 이 대목에 이어서 관가의 횡포에 아내를 잃고 모든 가장 다 팔아서 군사도망하는 사정을 격앙된 목소리로 서술해 나갔다. 화자의 신분은 옛날에는 어엿한 양반이었지만 모함으로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자기 대에 와서는 군역을 물어야 할 정도로 영락한 殘班 계층으로 보인다.<sup>11)</sup> 사대부층의 신분 분화가 극심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양반으로서 수호해야 할 이념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것은 화자가 신분이나 이념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생존이 문제가 되는 극한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교이념이 무력화된 이념적 공황 상태에서 계층간 대립·갈등이 첨예화된 18·19세기 조선사회의 난맥상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요노래>, <합강정가>, <정읍민란시여항청요> 등 일련의 작품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있다. 시조에서도 역시 가혹한 수탈에 의해 꺾박당하는 백성의 처지를 이렇게 나타냈다.

저 백성의 거동 보소 지고 싯고 드러와서  
 한 섬 쏴를 맞치라면 두 섬 쏴리 부득이라

11) 김문기, 《庶民歌辭研究》(형설출판사, 1983), 196쪽. “우리 조상 남중양반 진사급 제 연면하여 / 금장옥패 빗기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 시기인의 참소입어 전가 사변 하온 후에 / 국내극변 이땅에서 칠팔대를 살아오니 / 선읍입어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째로다 /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헌감관 / 유사장의 채지나면 체면보아 사양터니 /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군사강정 되단말가”

약간 농속 지엿슨들 그 무엇을 먹즈 흐리(李世輔)

還穀의 부정으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농민들은 먹고살기가 막막함을 이렇게 노래했다.

극한상황에서 유발되는 이러한 원한의 정서는 왕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막중변지 우리 인생 나라 백성 되어나서  
군사싫다 도망하면 화외민이 되려니와  
한몸에 여러 신역 물다가 할새없이  
또 금년이 돌아오니 유리무정 하노매라  
나랏님께 아뢰자니 구중천문 멀어있고  
요순같은 우리 성주 일월같이 밝으신들  
불점성화 이극변에 복분하라 비철소나

신역 물기 어려워 화외민이 될 각오로 유리무정하는 심정을 나랏님에게 아뢰자니 궁궐이 너무나 멀고, 성은이 밝다고 하나 이렇게 궁벽진 변방, 엮어진 향아리 아래 같은 신세인 나에게까지 성은이 미치겠느냐고 한탄했다. 이미 왕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아직까지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선의 이념적 상징인 왕에 대한 불신이 표면화되었다는 점도 큰 변화이다. 가난을 못 이겨 전전궁궁하면서도 태평성대와 충효를 외는 <누항사>류와는 전혀 다른 작가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현실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유교이념이 극도로 약화된 것이다. 중세 신분사회의 종말을 예고하는 징표라 하겠다.

작가의식의 이런 변화를, 동일 소재의 작품적 의미를 통하여 살펴보자.

이바 니웃트라 山水 구경 가자스라  
踏青으란 오늘 흐고 浴沂란 來日흐세  
아춤에 채산흐고 나조희 조수흐세  
갓 괴여 닉은 술을 葛巾으로 뱃타 노코  
곳 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賞春曲)



中心이 瑩然<sup>호야</sup>야 世慮 절로 그쳐다니  
 光風霽月이 腔子裏에 품었는 듯  
 浩然眞趣 날로 새롭 <sup>호노</sup>왜라  
 飛禽走獸는 六畜이 되얏거늘  
 달알이 괴기 낙고 구름 속의 빛흙 가라  
 먹고 못나마도 그칠 적은 업노<sup>왜라</sup>(蘆溪歌)

廚傳帳幕 온갖 差備 밤낮으로 準備하네  
 銀鱗玉尺 낙가니여 舟中에 膾烹하고  
 凝香閣 宿所하고 세여을 비를 탄다  
 泛泛中流 내려가니 江山도 조홀시고  
 巡相의 風情이요 百姓의 怨讐로다  
 人間에 남은 厄運 水國에 밋쳤도다(合江亭歌)

<상춘곡>에서의 낚시는 여유있는 안빈낙도의 전형적인 소재이다. 반면 <蘆溪歌>는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고 노니는 호연진취를 노래하기는 했으나, 비금주수를 육축으로 삼고 낚시와 농사로써 하루의 끼니를 보충해야 하는 형편을 말했다. 여기서의 낚시는 생계수단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러면서도 안빈낙도의 풍격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남아있다. <누항사>의 “口腹이 爲累<sup>호야</sup> 어지버 이저쩌다 / 瞻彼淇澳<sup>호디</sup> 綠竹도 하도 할샤 / 有斐君子들이 낙디 <sup>호나</sup> 빌려스라 / 蘆花 집픈 곳에 明月淸風 벗이 되야 넘지 업슨 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의 낚시 역시 그렇다. 그러나 <합강정가>의 낚시는 전혀 달라졌다. 화자는 스스로 낚시를 생각할 처지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낚시는 비참한 화자의 처지에 비해 너무나 호화로운 사치여서 오히려 그 행위가 원수같이 생각될 정도이다. 안빈낙도의 표상이던 낚시가 가림주구하는 관리의 호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 단계에 오면 유교이념은 혼란한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원리로만 작용하지 생활원리가 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원한맺힌 탄궁은 수탈을 일삼는 기득권층의 호사스러운 부귀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부귀에 대한 갈망의 역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안빈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진다.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가문결속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당대의 이런 현실에 기인한다. 가문결속 현상은 향촌사족의 경제적 쇠락과 정치적 단절, 그리고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진행된 향촌지배력의 상실에 따른 자기보전책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이들 향촌사족의 가사작품에서 가문의 결속을 강화하고 가족윤리·가문윤리가 고취되는 현상도 이러한 역사적 문맥 안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sup>12)</sup>

이런 류의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덕목을 열거하면서, 경제적 부의 축적 역시 가문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녀가>류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治産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治産歌>에서는 “齊家の 바탕으로서 농사와 부인네의 근검절약을 통한 건전한 부의 축적을 역설한다.”<sup>13)</sup> 이들 작품은 안빈낙도를 이념으로 한 작품과 함께 매우 보수적 성향을 띠지만, 빈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빈낙도가 미덕이던 사회에서 부귀가 미덕인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 V. 마무리

본고는 조선 사대부 문학에서 한 줄기를 이룬 안빈낙도 이념의 지속과 변모를 통하여 그들 미의식의 일단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하나의 주제나 소재·모티프 등이 개별 작품의 범위를 넘어 시대에 따라, 큰 단위의 장르나 장르와 장르 사이에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연구는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구의 잣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안빈낙도가 이념으로 정착된 조선전기의 작품을 검토하였다. 조선전기 사대부층에 있어서 안빈낙도는 생활화된 이념이었다. 경국제민을 이상으로 했

12) 김창원,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집문당, 1995), 317쪽.

13) 권순희, <■■■초당문답가■■■의 이본 양상과 주제적 의미>, 위의 책, 355쪽.

던 사대부층이지만, 물러남의 명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안빈낙도이다. 초야에서의 청빈한 삶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혼탁한 정치현실을 나무라면서 본인의 경국제민의 이상실현을 준비하는 退而自修의 실천이었다. 이 시대 작품에서의 안빈낙도는 정치현실에 대한 미련까지도 약화시키고 무화시킬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니고 있어 풍요로운 여유와 흥취가 있었다. 조선전기 사대부들에게는 물러나 자수하는 처지가 되면 으레 이렇게 안빈낙도를 노래하는 풍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 작품의 소재인 모옥·초려·초옥, 시비, 박주산채, 단표누향 등은 후대 문학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관념화되기도 했다.

17세기 이후에는 작가의 확고한 이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곤궁해진 현실 앞에 당황하고 고민하는 향반 계층의 탄식으로서 조선전기 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누항사>류의 작품군이 생겨났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전기의 안빈낙도를 본받으려 한 <낙빈가>류의 작품도 양산되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조선전기 가사에서 일반화된 이념과 흥취를 이어나가고자 하여 새로운 작품세계의 창조보다는 이미 일반화된 정서와 현실 인식, 그리고 규범적인 상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공허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두 유형은 몇 가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이념적 삶의 어려움과 공허함, 즉 안빈낙도 이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보수 계층의 작품군이다. 안빈낙도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절박한 정서를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작품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작품세계를 가진 현실비판 작품을 살펴 보았다. 관리들의 수탈이 자행되던 18·19세기의 현실비판 작품에서 유교이념은 혼란한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원리로서의 의의만 있었지 생활원리는 아니었다. 이런 현실에서 나온 원한맺힌 탄궁은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의 호사스러운 부귀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부귀에 대한 갈망의 역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안빈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진다. 18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가문결속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이런 현실에서 연유한다. 가문 유지의 위한 여러 가지 윤리 덕목을 열거하면서 경제적 부의 축적 역시 가문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녀가>류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治産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治産歌>에서는 齊家の 바탕으로써 농사와 부인

네의 근검절약을 통한 건전한 부의 축적을 역설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은 안빈낙도를 이념으로 한 작품과 함께 매우 보수적 성향을 띠지만, 빈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상반된 것이었다. 안빈이 미덕이던 사회에서 貧窮은 악이고 富가 미덕인 사회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안빈 이념으로써, 부유한 계층은 절제하고 가난한 계층은 가난을 극복해 나가던 시대에서 두 계층이 모두 부귀를 쫓아가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다음 두 대목이 이런 의식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貧而無怨을 어렵다 흐건마는  
 니 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飮을 이도 족히 너기로라  
 平生 혼 뜻이 溫飽애는 업노왜라(<누항사>)

가

예절도 의식이요 형세도 의식이요  
 친구도 의식이요 공명도 의식이요  
 스업도 의식이요  
 의식이 유족하면 츠식나서 글일키고  
 향천도 절노하고 죽벽의 일흠쓰고  
 괴린각의 화상되서 천추만세 유전히세(<치산가>)

로 바뀐 것이다.

**주제어** : 안빈(being content with poverty), 안빈낙도(contentment with poverty and delight in the Way), 탄궁(a sigh of poverty), 이념(idea), 현실(actuality), 경국제민(administration), 퇴이자수(retirement and self-teaching), 정치현실(actuality of administration), 향반(hyangban), 현실비판가사(reality-criticism-gasa)

## 참고 문헌

- 강전섭(1982), <낙빈가에 대하여>, 《한국고전문학연구》, 대왕사.
- 권순희(1995), <■■■초당문답가■■■의 이본 양상과 주제적 의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 김문기(1983), 《庶民歌辭研究》, 형설출판사.
- 김창원(1995), <18~19세기 향촌사족의 가문결속과 가사의 소통>,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 이상보(1987), 《17세기 가사 전집》, 교학연구사.
- 조동일(1994),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 최상은(2002), <蘆溪歌辭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韓國詩歌研究》 11집, 한국시가학회.
- 최진원(1981), <江湖歌道研究>, 《國文學과 自然》, 성대 출판부.
- 한창훈(1993), <朴仁老·鄭勳 詩歌의 現實認識과 志向>, 고려대 석사논문.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